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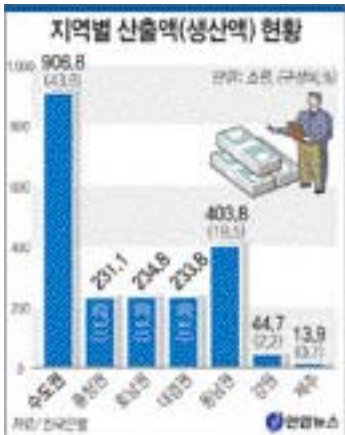
수도권 경제 독식 지방 갈수록 위축

국가경제 산출액 43.8% 집중... 호남은 11.3% 불과

수도권이 발달하더라도 지방경제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국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강력하게 추진해온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제력 편중이 여전한 상황에서 '선 수도권 규제완화 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현 정부의 지방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8면>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으로 나뉜 지역별 경제구조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이 국가경제 산출액 가운데 전체 43.8%를 차지했다. 지난 2003년(2007년 발표)의 44.9%보다 다소(1.1%) 낮아지긴 했으나,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동남권 19.5%, 호남권 11.3%, 대경권 11.3%, 충청권 11.2%, 강원권 2.2%, 제주권 0.7%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의 비중이 각각 18.2%, 20.1%로 압도적이었



고 전남은 6.5%로 6위, 광주는 2.2%로 강원도와 함께 12위에 그쳤다. 부가 가치의 지역별 구성비 역시 수도권 비중이 47.9%에서 48.3%로 높아졌다. 서울이 23.5%로 1위였고, 광주는 2.2%로 15위, 전남은 5.2%로 6위였다.

수도권 독식형 경제구조도 여전했다. 수도권의 타지역 생산유발계수는 0.805로 충청(0.932), 동남권(0.858), 호남권(0.844)을 밀돌았다. 최종수요가 여타 지역의 생산액을 유발하는 정도를 뜻하는 생산유발률 역시 서울은 44.2%로 광주(50.9%), 대전(55.5%)보다 오히려 낮았다. 수도권 발

달이 다른 지역으로 골고루 퍼져 나가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만 '잘 먹고 잘 사는' 질을 받아 경제구조가 고착된 것이다.

지역 내 생산품이 어떤 지역으로 나가는지를 파악하는 이출구조를 보면, 수도권의 경우 동남권 28.6%, 충청권 26.0%, 대경권 20.7%, 호남권 17.7% 등으로, 제주를 호남권으로 42.4%를, 나머지 경제권은 수도권으로 이출이 많았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은 전남이 16.2%로 가장 높았으며, 광업은 강원 29.7%, 제조업과 건설업은 경기도 각각 22.1%, 22.2%를 차지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서울이 36%로 가장 높았다.

지역경제 전문가들은 "수도권은 타지역에 대한 수요의존도와 타지역 생산유발률이 가장 낮은 자급자족형 경제임에도 여타 지역은 수도권 수요에 의존하는 정도가 매우 커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수도권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언론악법 철폐하라”

6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1가 YMCA 앞에서 열린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민주당 광주·전남 합동 규탄대회'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지도부와 시민·당원 8천여명이 “언론악법 철폐”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관련기사 4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표문화전당 4년 이상 지연 가능성

추진단 4개안 검토 발표... 2012년 개관 물건너가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논란에 1년째 발목을 잡힌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 시기가 최악의 경우 당초 예정보다 4년 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은 6일 광주시 동구 추진단 회의실에서 별관 철거 논란의 대안으로 제시된 4개 안에 대한 검토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4개 대안은 ▲문화전당의 원설계(별관철거) ▲별관 존치 ▲게이트(오월의 문·별관 1.2층 일부를 뚫어 통로를 만드는 안) ▲3분의 1 존치 등이다. 이병훈 추진단장은 “현재로서는 문화전당 설계 원안을 유지한다고 해도 당초 정부가 정한 2012년 개관으로 제시된 4개 안에 대한 검토 결과

란이 매듭지어질 경우 2013년 5월까지 개관이 가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당초 공정대로라면 전당의 건립 공정률이 39%대에 올랐겠지만 현재 9%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문화전당 건립 관련 예산 1천59억원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추진단은 “설계 원안 외에 나머지 3개 대안 가운데 하나를 택하

라도 개관 시기가 최소 2014년 3월에서 가장 2016년까지 늦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5·18사적지 원형보존을 위한 시도민대책위는 “추진단이 대안 검토를 통해 밝힌 공기 연장과 추가 비용 산출에 대해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진단은 “이달 중 아시아문화전당 설계자문위원회, 조경위원회 회의를 거쳐 다음 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와 관련한 최종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수 광주시민의 여론도 참조된다.

한편, 이병훈 추진단장은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및 방해물 제거 가처분 결정에 따른 별관 농성장에 대한 철거 등 강제집행은 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



영산강 2개 보에 수력발전소 만든다

年 9,100MWh 전기 생산

영산강에 설치되는 ‘죽산보’ 등 2개 보에 비롯한 4대 강에 설치될 16개 보에 소형 수력발전시설이 설치돼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국토해양부 4대 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6일 영산강과 한강, 낙동강, 금강 등 4대 강에 설치되는 고정보에 발전시설(터빈)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4대 강에는 총 16개의 보가 설치되는데 이들 보에 각각 발전시설을 달아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영산강에 설치될 보는 ‘죽산보’(나주시 다시면 죽산리)와 ‘승촌보’(광주시 남구 승촌동) 2곳으로, 이곳에는 각각 발전기 2대씩이 설치될 예정이다.

‘죽산보’에는 1천200kW 발전기 2대가 설치돼 연간 5천510MWh의 전기를, ‘승촌보’에는 800kW 발전기 2대를 이용해 연간 3천662MWh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영산강 2개의 보에 설치된 발전시설을 이용해 연간 총 9천 100M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영산강 등 4대 강 16개

보의 발전소에 생산되는 전기는 연간 27만8천471MWh로 5만6천여 가구 1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다.

4대 강 16개의 보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2천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일단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소수력 발전시설이 설치되면 발전량은 소규모이지만, 물 확보용 보를 녹색성장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도 쓴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印尼에 ‘한글 쓰는 섬’ 생겼다

찌아찌아語 표기 공식 문자로 채택

국내 학계가 추진해온 ‘한글 세계화 프로젝트’가 첫 성과를 거둬 문자가 없는 인도네시아의 소수민족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해 본격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훈민정음학회와 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주

(州) 부톤섬 바우바우시(市)는 최근 이 지역 토착어인 찌아찌아어(語)를 표기할 공식 문자로 한글을 도입했다.

시는 지난달 21일 찌아찌아족(族) 밀집지역인 소라울리오 지구의 초등학생 40여명에게 한글로 된 찌아찌아어 교과서를 나눠주고 주

4시간씩 수업을 시작했다. 교과서에는 찌아찌아족의 언어와 문화, 부톤섬의 역사와 사회, 지역 전통 설화 등 내용은 물론 한국 전래동화인 ‘토끼전’도 들어 있다.

인구 6만여명의 소수민족인 찌아찌아족은 독자적 언어가 있지만 문자가 없어 모어(母語) 교육을 못해 고유어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를 알게 된 훈민정음학회 관계자들이 바우바우시를 찾아가 한글 채택을 건의해 작년 7월 한글 보급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교과서를 제작해 보급했다. /연필뉴스

